

폭염에 에어컨 고장 '허걱'...수리 지연에 시민들 '헉헉'

광주지역 수리 최소 2주·신규 설치도 1주 걸려...“이 폭염에 숨 막혀요” 빠른 수리업체 찾기 안간힘 속 에어컨 없는 집 못 견뎌 모텔 숙박 모색

광주·전남에서 연일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AS(사후관리 서비스)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 고장으로 인한 수리신청 접수가 폭주하고 있지만, 최소 2주 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 수리 될 때까지 숙박업소 행 = 광주일보가 지역내 주요 가전업체 에어컨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에 에어컨 AS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짧으면 2주, 늦으면 한달 뒤에나 방문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이다.

7일 광주의 한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북구의 경우 오는 20일 수리기사가 방문가능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18일이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약 취소 등으로 취소 건이 나오면 수리 날짜를 앞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주가량 ‘에어컨 없는 여름 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전업체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A 씨는 지난 2일 서비스 센터에 AS를 신청했지만 센터에서는 “2주 뒤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A 씨는 집안에서 선풍기를 켜둔채 잠을 자려해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재차 센터에 하소연했지만, “워낙 수리요청이 많아 당장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결국, A 씨는 “에어컨 없이 2주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집 근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설치에도 1주, 고칠때는 2주 = 최근 3년동안 광주·전남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은 총 213건에 달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2021년 72건이었던 에어컨(룸에어컨, 시스템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건이 2022년에는 6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9건으로 다시 늘었다.

상담 사유로는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8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AS에 대한 불만이 5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북구 양산동에 사는 B씨도 최근 가전업체의 AS

에 크게 실망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온도가 29도에서 더 낮춰지지 않자 에어컨 회사에 출장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배정된 가장 빠른 예약 날짜는 12일 뒤였기 때문이었다. 막막해진 B씨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에어컨을 새로 사기로 했다.

B씨는 “구입 후에도 바로 에어컨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당장 설치가 가능한 사설 업체를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수리할 때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빠르다니 이 방법이라도 써야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업체는 “여느 때 같으면 곧바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여름철 에어컨 신규 설치 문의가 부쩍 늘었고 일손이 부족해 예약이 잔뜩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가전업체도 골머리 = 지속적으로 AS 지연에

따른 불만이 높아지자 가전업체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리지연이 해결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의 자체 수리 기사만으로는 모두 해결하기가 힘들어 사설업체 기사까지 고용하고 있지만 수리 수요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에어컨의 부품의 조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고장이 많아 에어컨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중고 에어컨 판매 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가전업체 측의 설명이다.

광주 한 사설 에어컨 수리업체 직원은 “여름철 한 계절만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탓에 빚발치는 수리 요청을 감당하러다보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하루 3건 들어오던 수리 요청이 12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너무 덥소~ 물 좀 주소! 입추(立秋)를 맞은 7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의 한 축사에서 광주북구청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며 축사 온도를 낮추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수온에...고흥 양식장 넘치 등 25만마리 집단 폐사

올 첫 사례...전남 양식어가 비상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25만마리가 폐사했다. 전남지역에서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어패류가 집단 폐사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전남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육상양식장에서 강도다리 20만5000마리와 넙치 5만마리가 폐사했다. 추정 피해액은 3억 1800만원

으로 집계됐다. 해당 양식장은 득량만 인근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하는데, 득량만은 지난달 31일부터 고수온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6일 득량만의 수온은 29.6도에 달했다.

양식 어가와 지자체가 역화산소를 투입해 수온을 낮추는 등 피해예방에 나섰다지만 바다의 온도가 30도 내외로 치솟으면서 역부족이었다.

강도다리는 고수온에 취약한 어류로 적정 수온은 13-18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흥군은 남해

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득량만 외에도 함평·여주·도암만에 고수온경보가, 가막만과 남해 연안·신안군 흑산면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고수온경보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3일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수사 확대

광주공장 지게차 운전자 입건...곡성 공장장등 3명도 조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잇단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지게차에 실려있는 원자재가 40대 작업자 B씨 위로 쏟아져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당시 신호수 등은 배치 돼 있었지만 A씨는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A씨가 안전 조치에

미흡했다는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이외에도 담당 팀장, 파견장, 공장장 등 상급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공장장 등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은 금호타이어 공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물차, 무안광주고속도로 작업 차량 '황'...운전자 숨져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30대 화물차가 운전자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 A(3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7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경 함평군 학교면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1t 냉동탑차가 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15t 작업차 보호 공기백 트레일러(싸인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A(3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2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차선도색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무려 210명

최근 3년새 광주·전남 지역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72명, 2022년 59명, 2023년 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7명, 2022년 630명, 2023년 598명으

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형화물차 등 자동차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전북본부, 고속도로순찰대 5·9·12지구대가 협업해 추진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